

[해외실무수습기-ICJ]

## “C'est le premier pas”

- 1976년 11월 생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불어불문)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대리
- (現)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



이 인 서

### I. 첫 번째 걸음

“Internship does not guarantee your chance to work here. but...  
C'est le premier pas(It's the first step)!”

간간히 내 사무실 컴퓨터의 인코딩 등 자질구레한 문제를 손봐주곤 했던 전산 팀 소속 한 친구가 건넨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실무수습이 끝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legal intern으로 근무하고 돌아왔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통상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턴경험이 일종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턴을 하면 국제기구에 근무한다는 명제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인턴을 하지

않으면 국제기구 근무할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명제는 어느 정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ICJ에서의 근무는 로스쿨 입학처럼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II. 국제사법재판소 인턴 지원 준비

여름에 ICJ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 번 채용공고가 나가고 나면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 통에 이르는 이력서가 날아든다. 내가 썼던 사무실이 바로 직전까지 인사팀이 사용했던 방이었는데 배정 후에도 얼마간 방바닥을 도배하다시피 가득 쌓여있던 이력서 봉치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하다. 보통 국제기구 인턴 지원 원서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3개월 전에는 접수를 시켜놓는 것이 필요한데, 작년 1학기 때에는 2학년을 맞아 다들 여름에 실무수습을 어디로 나갈 지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올라 있었던 때여서, 나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찌감치 지원서를 접수시켜놓았었다.

많은 국제기구 중에서도 ICJ를 선택해서 지원한 이유는 국제법 수업을 들을 때 자주 접해 친숙하기도 했지만, 'World Legal Capiatal'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국제기구 legal part에 진출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III. 헤이그로 출발

원서를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국제사법재판소 인사담당에게서 인턴근무 확정 이메일이 왔다. 기말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마음이 바쁘기는 했지만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일정과 배속부서 등을 조율해 나갔다. 다소 제3자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실무수습 모습과는 달리, 바로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인턴이었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configuration을 불어로 할지 영어로 할지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인상 깊게 남아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근무할 부서는 Legal Department로, 근무기간은 국내 법원실무수습을 마치고 난 나머지 여름 방학기간을 전부 활용한 한 달로 정해졌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2주 동안 서울남부지법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어느새 네덜란드로 출발할 날짜가 되어있었다. 가족의 배웅을 뒤로 한 채 암스테르담행

KLM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으레 파리의 여름 날씨가겠거니 하고 반팔에 반바지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으나,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가을 옷차림을 발견하고는 이내 아차 싶었다. Dutch weather라는 표현도 있듯이 비가 왔다가도 금방 해가 뜨고 다시 또 비가 오는 네덜란드의 날씨는 선선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암스테르담에서 헤이그까지 가는 인터시티열차 안에서 만화 프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네로가 왜 여름에도 항상 긴팔에 조끼까지 챙겨 입었었는지 진작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스쳐지나갔다. 숙소는 헤이그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간 우리나라 학생의 방을 운 좋게 서브렌트했다. 이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당장 이틀간은 헤이그 소재 한인민박에 머물렀는데 혹시 여행계획을 세운 분들이라면 몇 푼 아끼려다 고생하지 말고 근처 호텔을 이용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 IV.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첫 출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7시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일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한다면 그날 오후 5시에 스키폴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첫 출근 당일에는 시차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자 다소 멍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단 약속한 출근시간인 9시에 맞추기 위해 아침을 챙겨먹고 ICJ로 향해야 했다. 헤이그는 조그만 도시인데 ICJ가 자리 잡고 있는 Peace Palace(평화궁)은 유명한 관광코스이기도 한지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약속시간인 9시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정문 security에다 한국에서 온 아무개라고 밝히고 오늘부터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에 거구의 security직원은 비서실에서 사람이 나올 테니 평화궁 중앙출입구에서 기다리란 대답을 했다. 참고로 네덜란드 남자의 평균 신장은 185cm이다. 출입구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서있자니 한국에 있을 때 인턴 일정과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비서실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 왔다. 오는 데 힘들었지 않느냐, 붙어가 편하냐 영어가 편하냐 등의 첫인사를 나눈 뒤 사무국으로 올라가는 길에 재판정이며 건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Dutch식 espresso를 대접받고 서약서를 작성했다. 대충 여기서 보고들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우리나라 법원실무수습과 별 차이는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무부서인 Legal Department가 위치한 곳은 1913년 철강왕 카네기가 150만달러를 기부해 지은 평화궁 건물 본관이었다. 남부지법 실무수습할 때 시보실에서 한 책상 당 여러 명이 둘러붙어 앉아 근무하던 것과는 달리 방 하나를 통째로

내주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인턴쉽나온 다른 두 명의 친구들과 share하기는 했지만 시중 일관된 과분한 배려는 무척 고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배정받은 사무실에서 조금 대기하고 있으니 security 소속직원이 나와 ID카드와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건물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친절 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양식 건물이 으레 그러하듯 □자형 건물구조는 5주간의 인턴쉽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나 되서야 비로소 익숙해질 수 있었다.

ID카드 수령과 건물 소개까지 받는 것을 마친 후, 소속 부서의 국장님 방으로 안내됐다. 국장님과 ICJ에 인턴을 오게 된 동기며, 한국 법률제도의 특징, 학교에서 받은 국제법 교육의 정도 등에 대해서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같은 층에 있는 직원들 중 몇몇을 불러 직접 인사를 시켜주시는 친절을 베풀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아까의 security 소속 직원이 이미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었다. 바로 인턴기간 내내 함께 했던 벨기에에서 온 Joséphine과 프랑스에서 온 Annelise였다. 바쁜 오전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되자, 최근까지 인턴을 하다 직원으로 눌러앉은 이탈리아 출신의 Luciano까지 포함해 인턴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첫 점심을 먹은 곳은 ICJ 근처의 전형적 유럽 노천카페였는데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종종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곤 했다. 식사를 하며 이들과 유럽권의 학제며 전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한인민박으로 돌아와서는 긴장이 풀린 나머지 바로 잠들어버렸다.

## V.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근무

첫날 이후 몇 일간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ICJ의 배려가 있었다. 이 덕분에 한인민박에서 서브랜트한 방으로 이사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출근해서는 아직 일이 없어 한국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고 노닥거리며 하릴없이 시간을 보냈다. 6시에 퇴근해서 5주간의 짧지 않은 인턴생활을 위해 나름 적응하려 근처 마트에서 장도 보고, 방에서 TV도 보고, 헤이그 시내도 돌아다녀 보고 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렸다 겠다 하는 Dutch weather탓인지, 아니면 아직 일을 못 받고 시간만 보낸다는 조바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트램정거장 앞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Katy Perry의 노래 중 'You could travel the world, but nothing comes

close to the golden coast'란 구절이 얼마나 귀에 와서 꽃히던지 이대로 한국에 그냥 돌아가 버릴까하는 충동마저 강하게 들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시원한 인상을 가진, 소속 부서인 Dept. of Legal Matters의 두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바로 이 두 분이 5주 인턴기간 중 나의 supervisor였는데, ICJ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으로 치면 선임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의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었다. 두 명의 supervisor중 선임직원의 "We've decided your work"란 또렷한 한마디가 어찌나 반갑게 들리던지... 인턴기간 중의 나의 일은 이 지도관중의 한 명이 하고 있던 일 중 그 일부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것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ICJ의 전신인 PCIJ의 각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proces-verbaux를 검토한 뒤 현재 진행되는 케이스에 선례로 적용 가능한 Article과 법률적인 쟁점을 추출해 brief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처음 접한 proces-verbaux 파일은 그 양이 상당하기도 했고, 또 회의록의 특성상 다소 논점이 산만한 터라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 이 일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하나 하나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해서 적잖이 힘이 들기도 한 작업이기도 했으나, 비교적 재미있는 주제들도 군데군데 놓여있어서 나름 빠져드는 재미가 있었다. 아침에 파일을 넘겨받고 저녁에 다시 반납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서실 직원들과도 체법 친해지게 되어 한국에 오기 전에는 같이 스케베닝엔 해안 근처 식당으로 저녁도 먹으러 가고 농담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등 꽤 재미있게 지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위치한 곳은 네덜란드에서도 서울의 한남동처럼 세계 각국의 공관이 촘촘히 모여있는 곳이다. ICJ가 위치한 평화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대한민국 대사관도 있었는데 사무처장님의 권유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불쑥 찾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네덜란드 대사님께서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특히 관심있는 국제법 분야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시고는 이중에서도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심도있게 공부할 것을 주문하셨다. 이 조언 말씀이 SJD과정이 개설된다면 전공 선택을 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담이지만 이후에도 근처 한국식당에 갈 때마다 대사님과 우연히 마주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격려를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다.

## VI. 헤이그아카데미와 우리의 모습

매년 7월과 8월에는 평화궁 신관에 위치해 있는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세션이 열린다. 마침 2010년에는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님 한 분께서 director's course를 진행하러 와 계셨다. Regitsry측의 소개로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카데미 강의가 종강하는 날에는 교수님 주선으로 과정에 참가한 한국학생들과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전까지는 한국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총 6명씩이나 와있는 걸 보고 어디를 가든 항상 경쟁자는 존재한다는 사실에 겸손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여름 정기 코스와 상위 코스인 director's course까지 이수하면 diploma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제법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헤이그 아카데미의 이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 2층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각국 로스쿨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진지한 모습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교육제도 및 진출지원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이는 해외무역에 경제의 대부분을 의존하면서도 막상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에도 국제대학원이 설치되어 간간이 국제기구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UN에서의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와 비추어 본다면 더욱 명확해진다. 기왕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적어도 국제기구의 legal part 분야에 있어서는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배출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인턴을 와 있던 친구들이나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자국에 마련된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람들이다. 나의 경우는 로스쿨 학제 상 두 달간의 짧은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인턴들의 경우에는 로스쿨의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가 아예 실무수습에 배정되어 있어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국제기구에 근무해야 하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한 장학재단의 형식으로 자국 정부에서 졸업 후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일 년여에 이르기까지 체제비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자국 학생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도 여럿 있었다.

우리나라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휴학하고 몇 학기 동안 인턴근무를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졸업 후 변호사시험 보고 난 이

후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만일 우리나라 정부의 우회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인턴을 했던 사람과 같은 경우, 졸업 후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인턴 종료 시점에 직원으로 눌러앉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장 가까운 일본과도 독도문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배출과 같이 국제법상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의 인적자원을 국제사법기구에 적극 진출시키려는 노력은 대승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VII. 혼자 힘이 아니다.

키이스 페라지의 《혼자 밥먹지 마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은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  
다른 수천 명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  
한마디 격려의 말을 건네준 사람...  
모두가 우리 개인의 성격과 사고방식의 형성에,  
그리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 기여하였다.”

사실 실무수습 원서를 낸 이후 설마 되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기도 했지만, 설사 된다고 해도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가 3월에 힘겹게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다. 학기 중에는 멀리 부산까지 내려와 공부하는 터라 곁에 잘 있어주지도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를 둔 채 거의 두 달간이나 외국에 나가 있을 엄두도 쉽게 나지 않았었다. 그런 데도 아내는 이런 나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으니 염려 말고 갔다 오라고 격려해주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간다고 했을 때도 두 말 없이 동의해주었던 아내였기에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실무수습기 지면을 빌어 아내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한다.